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피델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는 어디로 갈 것인가?

김기현

2016년 11월 25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역사적 인물의 사망에 대해 세계의 주요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마이애미 헤럴드』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은 기사의 제목에 단지 피델 카스트로의 죽음 그 자체만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피델이 미국의 제시 잭슨 목사(피델과 가장 친한 미국인이었다)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기사의 제목을 ‘전 세계 정치적 극좌파의 정신적 지주이던 쿠바의 독재자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하다’라고 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쿠바를 상징하는 시거를 피우는 피델 카스트로의 사진과 함께 기사의 제목을 ‘미국에 도전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90세에 사망하다’라고 붙이고, 피델 카스트로의 좌파 성향보다 반미주의 성향을 더 강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영국신문 『가디언』지는 고르바초프와 함께 있는 피델 카스트로의 사진을 실으면서 ‘혁명적 선동가가 마침내 노환으로 물러났다’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쿠바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피델주의자다’라는 쿠바인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단 기사를 함께 실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진보주의 지도자인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피델 카스트로, 우고 차베스를 이어 라틴아메리카 반미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기사의 제목을 ‘쿠바는 카스트로다’라고 달았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피델 카스트로의 영정 앞에서 유산 계승을 다짐한 라울 카스트로(출처: <http://www.todayonline.com>)

쿠바 국기를 흔드는 피델 카스트로의 최근 사진과 함께 기사의 제목을 카스트로의 죽음이 아닌, ‘대장이여 영원하라!’(Hasta siempre, comandante)라고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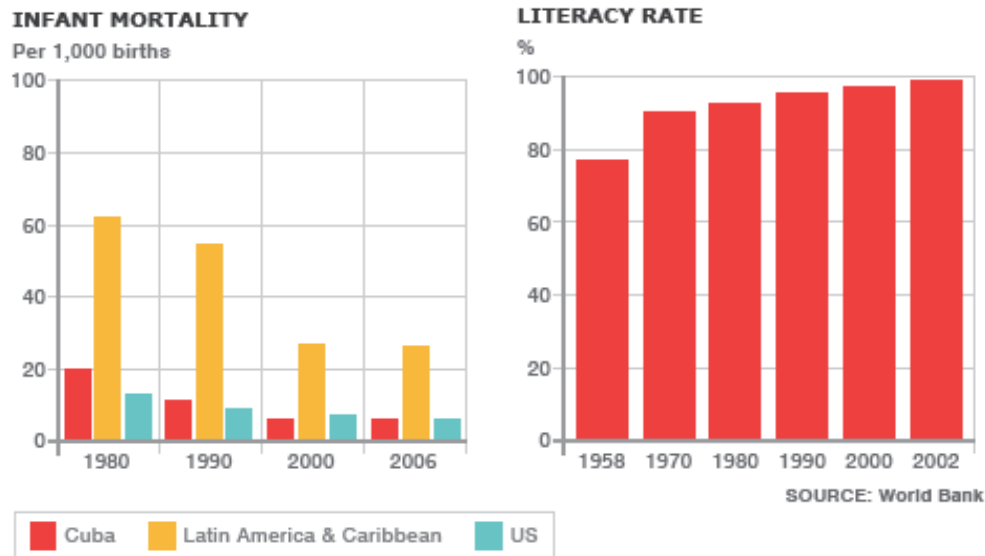
결국 피델 카스트로의 죽음을 보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사후에 쿠바에서 피델주의가 막을 내리느냐, 아니면 피델주의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대개 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모든 업적을 부정한다. 한편 지지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바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미국에 도전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90세에 죽다”(출처: <https://www.nytimes.com>)

피델 카스트로 유산의 명과 암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기 전인 1980년대 말까지 피델 카스트로가 통치하는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진보세력에게 하나의 이상주의 국가로 간주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교육과 보건에서 카스트로 정부의 업적은 비록 그것이 상당 부분 소련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놀랄만한 것이었다. 교육과 보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1987년 쿠바는 기대수명이 74세로 중남미에서 1위(비슷한 일인당 국민소득의 브라질은 65세에 불과함), 유아 사망률은 천 명 당 38명으로 역시 중남미 국가 중 1위(브라질은 105명), 문해율은 96%로 역시 중남미 1위(브라질은 76%)였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아바나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ELAM: Escuela Latinoamericana de Medicina)은 중남미 최대의 의과대학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지금도 중남미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의 학생도 와서 공부를 한다. 등록금은 전액 무료이며, 학생은 졸업 후 빈곤 국가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면 된다. 쿠바는 국경없는 의사회 등 해외로 가장 많은 의료진을 파견하는 나라이다. 그야말로 인본주의적 의술이 무엇인지를



쿠바의 유아 사망률과 문해율(출처: <http://news.bbc.co.uk>)

쿠바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혁명으로 인해 쿠바는 단지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반미주의의 상징적 국가이자, 나아가 세계적으로 제3세계 운동, 비동맹국가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로 성장했다. 1959년 혁명 이후 쿠바는 국제정치 질서에서 영향력 있는 강소국이 되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는 개인숭배를 원하지 않았다. 쿠바 혁명광장에는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동지였던 체 게바라와 카밀로 시엔푸에고스의 철 구조물은 있어도 정작 피델 카스트로나 라울 카스트로의 조상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와 달리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어느 곳에도 동상을 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리나 건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피델 카스트로는 사망 후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전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화장되어 재로만 남았다. 피델 카스트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정신이지 형상이 아니었다. 비록 동상도 없고, 시신도 재로 화했지만 많은 쿠바인은 “피델은 죽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고, 아플 때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고, 굶지 않고, 살 집이 있고, 국제적으로 존중 받는 국민이 되었다



쿠바 혁명광장의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좌)와 카밀로 시엔푸에고스(우) 조형물(출처: <http://www.thebohemianblog.com>)

고 해서 모두 만족하지는 않는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도 물자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굶주림을 면하면 더 나은 먹거리를 생각하게 된다. 쿠바 사람들은 토끼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지만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 생일 때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이상한 케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은 맥도널드 햄버거와 피자도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집은 있지만 낡고 좁으며,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더운 나라임에도 일반인 중 에어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낡은 냉장고라도 하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버스가 있으나 보통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국가에서 받는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생필품 정도이다. 그나마 물자부족으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마음대로 접근 할 수 없는 것도 불만이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때문이라고 했다.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제재조치가 분명 걸림돌이기는 하다. 하지만 카스트로 형제의 정부가 경제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소련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맞이한 ‘비상시기’부터 다양한 개혁이 실시되었

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쿠바의 시장사회주의로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제동 장치는 역시 피델 카스트로였다. 카스트로는 비상시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즉각적으로 ‘사상 투쟁’을 벌여 개혁을 후퇴시켰다. 거의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유사한 반개혁조치였다. 2006년 권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의견’이라는 형태로 쿠바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다(2012년 6월까지 월 평균 5회 정도 글을 발표했다. 그 후 년 2회 정도로 줄었고, 2016년 3월 28일 이후에는 더 이상 기고하지 않았다). 오바마가 쿠바를 방문했을 때, 피델 카스트로는 마지막 공식 글에서 “우리는 제국의 선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바마의 방문을 새로운 기회로 보기보다 오히려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2016년 4월 제7차 공산당대회에는 또 삼선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자신이 사망 후에도 쿠바 공산주의의 이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물론 피델 카스트로의 글이나 말이 라울 카스트로 정부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 특별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라울 카스트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피델 카스트로의 권위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권력을 이양 받은 후에도 라울 카스트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델 카스트로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의회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미 관계개선에서도 피델 카스트로가 인정했음을 굳이 강조했다.

피델 카스트로 사후의 쿠바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와 달리 혁명 이전부터 공산주의자였지만 피델 카스트로보다 실용적이었다. 국방장관으로서 군수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구식 경영방식을 도입했으며, 비상시기에도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위해 피델 카스트로를 설득하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사회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낮은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



라울 카스트로(좌)와 그의 유력한 후계자 미겔 디아스 카넬(우)(출처: <http://www.lainformacion.com>)

니즘을 약화시키고 대신 국민의 근면성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울 카스트로는 현실적으로 낮은 생산성의 문제는 사회주의 모델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반대하는 피델 카스트로의 글이 때때로 형제간에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델 카스트로는 라울 카스트로가 모든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심지어 2010년에는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쨌든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 개혁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마저도 최근 2년에는 특권 상실을 두려워하는 당과 관료의 반대에 직면하여 서서히 중단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면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은 쿠바 경제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것인가? 쿠바에서 포스트 공산주의로의 이전이 시작될 것인가? 『포린 어페어스』가 최근 호(November 28, 2016)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까?

일단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은 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인해 쿠바의 변화에 가장 큰 장벽 하나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쿠바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인해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쿠바의 개혁 방향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야기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2018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과 각료회의 의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80세가 넘는 혁명세대는 혁명 이후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물론 피델이 그랬던 것처럼 라울도 공산당 제1서기와 혁명군 총사령관 자리는 3년 더 유지할 것이다). 라울 카스트로의 가장 유력한 계승자로 간주되고 있는 미겔 디아스 카넬은 현재 56세이다. 디아스 카넬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사회주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신권위주의적 경제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지금보다 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쿠바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오바마 시절의 관계 개선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의 공약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며, 한 때 일부 기업인의 이익을 대변해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미국 기업이 쿠바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 마당에, 또 쿠바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의 대부분이 확고한 지지 기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 쿠바 관계를 선거 때 주장한 것처럼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쿠바는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는 2018년까지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서 내부적으로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모색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쿠바에서 포스트 피델의 시대를 생각하기보다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난 이후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